

KLPGA 임원(이사) 입후보 출마 포부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사로 출마한 회원번호 127번 구민지입니다.

2024년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를 아래에 밝히드립니다.

첫째,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KLPGA 회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 교육 시스템 강화와 회원복지기금 제도를 정착화해야 합니다.

방송, 학교, 연습장 등에서의 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회원 교육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브랜딩을 통해 KLPGA 회원이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용품업체 등 골프업계와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각 기업과의 협약 또는 제도를 구축해 KLPGA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들 중에서는 건강 악화, 사고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회원들은 물론 회원들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위한 KLPGA 복지기금 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협회의 자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988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3,000만원의 종자돈으로 KPGA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로부터 36년 후인 2024년 KLPGA는 정규투어 대회수 30개에, 전체 투어 총상금액이 347억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협회의 자산 또한 숙원사업인 사옥을 마련하는 등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협회의 역대 임직원분들이 방송중계권 계약, 투어의 활성화 등 여러 방면에 있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KLPGA는 쉽 없이 성장해왔습니다.

협회가 쌓아온 협회의 자산을 제대로 투자하고 운영해야 될 시기입니다.

KLPGA 소유의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회원들의 편의와 자산가치의 증대 등 어느 것을 우선 순위로 둘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협회의 사외 이사 등 전문가분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협회 자산의 미래지향적 투자와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고민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기 내에 정기총회에 중

장기적 협회 자산 운영 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치우침 없이 오로지 협회와 회원들을 최우선에 두고서 고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세계 No.1 KLPGA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투어가 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지난 과거 우리 선배프로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세계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후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 구민지는 LPGA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세계 최고의 KLPGA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했듯이, KLPGA의 명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선수육성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주니어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니어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부, 2부, 3부, 4부 투어 대회와 스폰서 기업을 1순위로 생각하며 스폰서의 입장에서 대회의 홍보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올포유 무안CC 드림투어와 FX렌트 챔피언스투어 등 대회를 직접 유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회 스폰서십에 주력하겠습니다.

KLPGA 대회의 국내시청율은 최고 수준입니다. 방송중계권과 미디어 영향력 그리고 열성적인 골프팬들을 토대로 머천다이즈, 라이선스 사업, 동계투어 활성화 등 자체 수익 모델을 발굴, 강화하여 협회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많은 혜택들이 회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는 포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가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협회의 발전이 회원여러분들의 미래와도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

성 명 : 구 민 지 

KLPGA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귀중